

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관람한다 서울시, 3만석 규모 돐구장 건립

오세훈 시장, 토론토·뉴욕 방문
잠실에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수변생태문화공간 조성 구체화

서울시가 잠실에 세계적인 수준의 돐구장과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한강과 연계한 수변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토론토 로저스센터'를 방문해 잠실 일대에 돐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전시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찾은 로저스센터는 약 4만 1000석을 갖춘 돐 경기장이다. 토론토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과 연계 조성돼 객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시는 잠실운동장·마이스 복합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간사: 한화)'와 돐구장 건립을 구체화하는 중으로, 국제경기 유치 가능한 3만석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 야구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뉴욕 자비츠 컨벤션 센터도 방문한다. 맨해튼 서부, 허드슨강 인근에 위치한 자비츠센터의 전시면적은 약 7.8만㎡다. 센터는 전시·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의 관광·관광산업, 숙박·상업시설 활성화에 기여, 뉴욕시 전체에 연간 2조4000억여원의



잠실 전시컨벤션 센터 개발안 한강변 조감도. /서울시

매출과 약 1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잠실에 들어설 전시 컨벤션센터는 전시 면적 약 9만㎡, 회의 면적 2만여㎡ 규모로 건립된다. 한강 경관을 활용해 매력적인 조망을 갖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돐 야구장, 전시 컨벤션센터, 업무·상업·숙박시설을 갖춘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말 실시 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이날 오 시장은 산업화로 고립됐던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재편한 '토론토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지를 방문해 한강과 탄천 수변을 활용, 잠실 일대에 매

력적인 수변 생태·여가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은 활용 가치가 낮은 '토론토 온타리오호' 주변을 생활·업무·여가 등 복합용도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센트럴 워터프론트, 이스트 베이프론트, 웨스트 돈 랜즈, 포트 랜즈 등 크게 4개 구역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한강과 탄천의 매력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강 본류~탄천 합수부를 중심으로 ▲자연 호안 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접근성 개선 ▲매력적인 수변여가 문화공간 설치 등 기본 설계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에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가장 절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
일반 서울시민比 고용률 ↓ 실업률 ↑
자살충동 2배 이상... 정신건강 취약

이탈주민은 일반 서울시민 대비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3.4%, 실업률은 8.8%였다. 일반 서울시민의 고용률은 59.2%, 실업률은 4.8%로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해 각각 5.8%포인트 높고, 4%포인트 낮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85.3%는 남한에서 자신의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했다. 2021년 기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8.8%로 가장 많았고, 중하층(34%), 최하층(12.5%)이 뒤를 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은 일반시민과 비교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2017~2021년 5년 평균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은 13.8%로, 동 기간 전국 13.4%와 비교해 0.4%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 충동 경험 비중이 5.2%(2020년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자살 충동 경험의 주요 원인은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장애'가 31.3%로 1위였다. '경제적 어려움'(28.2%), '외로움과 고독'(16.5%)이 그다음이었다.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남한 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 취·창업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며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 견학, 단기 인턴, 특강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채용 특별 장려금 제도를 신설, 기업의 채용 유인을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서울시민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남한 사회에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했고,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18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672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이 3080명(4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30대 청년층 2358명(35.1%), 60대 이상 1055명(15.7%), 0~19세 이하 230명(3.4%) 순이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전국 북한이탈주민(이하 전국)보다 높았다. 2021년 기준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주택)에 사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67.2%였다.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9.3%포인트 높고, 자가에 사는 비율은 11.3%포인트 낮았다.

2021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

에듀테크, 공교육 도입·수출 활성화 박차

교육부, 에듀테크 진흥방안
하반기 디지털 선도교사 집중 양성
‘K-에듀테크’ 브랜드 개발해 홍보

교육부가 공교육 현장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를 도입하고, ‘K-에듀테크’를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가칭 ‘에듀테크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결합한 산업을 뜻한다. 에듀테크 산업은 디지털 혁명의 도래, 코로나19와 맞물려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7조3000억원 규모인 에듀테크 산업 시장이 연평균 8.5%씩 성장해 2026년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 디지털 선도교사 양성... SW 적극 활용

교육부는 이런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공교육에도 에듀테크를 도입해 교육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이 학교 수업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에



장상훈 교육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에듀테크 진흥방안’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듀테크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에게 에듀테크를 구입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하는 등 조달 체계를 만든다.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교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아이에담(AIE DAP) 마스터교원을 700명에서 2025년 1500명, 같은 기간 터치(TOUCH) 교사단을 4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선도 교사들은 학교에서 ‘디지털 장학사’로 활동하게 된다.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보급은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 6월 기준 초·중·고 학생 전체 58% 수준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2025년 전까지 학생 1명이 1개의 디지털 기기를 갖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 관련법 추진... “K-에듀테크” 브랜드 개발, 수출

정부는 현시점에 맞는 에듀테크 진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에듀테크 진흥법’을 마련하고 에듀테크 산업에 맞는 실태조사 체계, 투자가치평가모형도 개발한다. 현재 ‘이러닝산업법’, ‘원격교육법’ 등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만, 공교육과 에듀테크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K-에듀테크’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 지원(브랜드K), 한류 홍보(한류박람회 등)와 연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국가별로 현지화하고 교사 교류, 교육정책가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에듀테크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상훈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이슈 논의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상시적 민·관 네트워크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lhj@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1436원 확정

(시간당)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39만원

서울시는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공공·민간간 형평성, 시 재정 여건,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157원과 비교해 2.5%(279원) 올랐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39만 124원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 일자리 참여자를 포함 총 1만 5000여 명이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바이오 컨퍼런스·전시 동시 진행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인천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가 주관하며 한국생물공학회(KSBB)가 운영하는 ‘2023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퍼런스(Big C 2023)’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바이오 분야 전문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콘퍼런스 형태로 진행된다. 컨퍼런스는 빈 생명과학대

학교의 Nicole Borth 교수, 포스텍 임신혁 교수, 싱가포르 국책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청 A*STAR의 기초장관을 비롯하여 ‘단백질 및 항체 치료’ 등 6개의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

동시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국내 유수의 바이오 기업, 대학, 기관 등이 참가하여 최신 바이오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참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참가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